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지

오리고기 자율수매비축 단행

수도권지역 오리위생도축장 건립 시급

오리고기 수입량 사상 최대

오리고기 소비 급감 대책마련 시급

수입오리고기 무자료 거래 성행 대책마련 시급

전염성 간염백신 이달부터 상용화

중국 가금육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 농림부 입장 강경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지

중국산 가금육 수입이 중지되어 매월 큰폭으로 증가하던 수입량이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올 하반기 오리업 경기 호제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4일 중국에서 생산된 수입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1)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중국산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역원은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지난 5월16일 홍콩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와 같은 타입이라고 밝히고 오리고기등 가금육을 통해서도 질병전파 가능성이 낮으나 전파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수입금지조치에 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육의 생산일 4월13일에서 최장잠복기인 21일을 역산한 3월 23일부터 생산되어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588톤중 창고에 보관중인 2,655톤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토록하고 기 출고된 1,933톤은 수입자에게 유통중지명령 및 자진회수토록하여 반송 또는 폐기기로 하였다.

검역원은 국내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산 가금육은 안심하고 소비하여도 된다고 강조하고 국립보건원도 사람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플루엔자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오리고기는 4천3백12톤, 닭고기 3천2백99톤이며 이중 창고에 보관중인 오리고기는 1천5백65톤, 검역이 완료되어 출고된 물량은 2천7백47톤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조치로 회수 및 반송조치돼야 하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물량중 닭고기는 닭고기는 1천6백17톤, 오리고기는 2천9백71톤에 달하는 것으로 검역원은 밝혔다.

오리고기 소비 급감 대책마련 시급

중국산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수입중지 보도가 나온 이후 오리고기 소비가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보도이후 오리고기 전문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오리고기 유통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리정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방송보도로 인해 당초 오리고기는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오리고기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식업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보도이후 업소를 찾아온 손님마저도 국내산 오리고기인지를 묻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0년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유원지 계곡물이 없는데다 농촌의 모내기 및 작물 파종등이 늦어지는 것도 오리고기 소비가 줄어드는 한 요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오리출하일령이 종전보다 3-4일 지연되고 육용오리 가격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어 소비위축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오리고기 자율수매비축 단행

최근 오리고기 소비위축에 따른 육용오리 체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오리고기 수매비축이 업계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본회는 지난 16일 대전유성 로얄호텔에서 관련업계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가격 안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하락세로 돌아선 오리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오리고기 수매비축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육용오리 출하지연현상은 오리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된데 따른 것이나 6월말이나 7월로 들어서면 오리고기 소비가 성수기로 접어들어 가격하락이 반전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

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육용오리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갈 수 있고 한 번 내려간 육용오리 가격의 반전은 업계특성상 쉽지않다며 가격안정을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솔선하여 수매비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세로는 수매비축이 어렵다는데 전원이 공감하고 시장출하되지 못하는 오리에 대해 현지 도착 생체 3kg을 기준으로 육용오리 생산비 수준인 4천원에 수매키로 결의했다. 또 사육,부화,유통업계가 고통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실효성이 있는만큼 수매비축한 농가에 대해 비축출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이 새끼오리 입식 물량에서 3백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또 수매비축된 물량이 일반 시장출하되지 못하도록 협회가 관리감독키로 했으며 비축업체는 일정한 장소의 냉동창고에 비축량을 보관토록하고 비축된 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고증을 협회에 제출키로 했다.

수매기간은 18일부터 6월 말까지이다.

이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전국 부화장이 공동 참여한 새끼오리 입식량에 대한 조절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육용오리 출하상황을 보아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를 전후하여 차후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수입오리고기 무자료 거래 성행 대책마련 시급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오리고기에 대한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입오리고기의 상당부분이 무자료로 거래되어 세금을 포탈하고 있으며 위생

문제가 발생되어 물량 회수조치시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이 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중간유통인에게 kg당 1-2백원을 싸게 거래를 독려하고 있고 중간유통업체 역시 수입육이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수단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당부분의 수입오리고기가 무자료 형태로 거래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같은 무자료 거래는 관계기관의 단속이 이뤄지면 쉽게 시정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 놓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거래에 대한 행정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함께 국내산 오리고기 취급업체들의 신고정신과 아울러 생산단체의 조직적인 강력한 감시기능 업무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수도권지역 오리위생도축장 건립 시급

수도권지역에 오리위생도축장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오리소비위축으로 수도권 지역 오리출하일령이 다소 지연되면서 일부 체화된 오리를 수매비축하려해도 위생적으로 오리를 대량 도축할 도축장이 없는데다 자체 도축하는 도축업자들의 경우 일선 경찰서 환경단속에 의한 법정구속이 잇따르고 있는데서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리소비위축으로 오리고기 소비 성수기를 대비하여 출하지연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오리를 냉동비축을 목적으로

도축하려해도 수도권지역에는 오리를 대량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이 없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수매비축을 위한 오리도축은 일정한 도축시설이 있는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가 도축될 수밖에 없어 큰 애로를 겪는데다 물류비등 냉동수매 비축을 위한 비용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오리를 유통하는 업자들의 경우 환경오염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최근 경기 화성지역 및 청계산등에서 오리를 자가도축하여 유통하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법정구속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 지역 오리유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하여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오리고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리위생도축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오리위생도축장 건립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오리고기 위생도축을 시현하기 위해서 2개소의 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하여 오리위생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해 연내 작업장 건립이 시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염성 간염백신 이달부터 상용화

오리전염성 간염백신이 상용화되어 이달부터 사육농가에 공급될 전망이다. 오리전염성 간염백신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녹색자 수의약품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인 제품검정을 지난 5월말 신청했다고 밝

오리정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제품검정이 6월말을 전후하여 검정이 끝날 것으로 전망되어 7월중 일반 오리사육농가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사육농가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전염성 간염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오리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사육농가에서 오리전염성 간염에 의한 피해는 발생되고 있으나 종전과 같이 대량폐사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전염성 사육농가의 전염성 간염 발생이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다소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리고기 수입량 사상 최대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과 회수조치로 수입된 오리고기의 일부가 시중유통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지난 5월 한달간 수입된 오리고기 수입량이 1천톤 넘어서 수입이래 월별 수입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집계한 5월 오리고기 수입량 통계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수입된 오리고기수입량은 중국산 986톤, 태국산 230톤, 프랑스 0.2톤등 무려 1천2백1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입량은 전월대비 145% ,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무려 484% 증가된 양이며 지금까지 오리고기 월 수입량이 천톤을 넘어선 적은 수입개방이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5월에 수입된 중국산 오리고기가 위생문제로 전량 반송조치가 이뤄져 시중유통이 불가능하게 됐으나 수입통관된 상당량

의 중국산 오리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 회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오리고기에 의한 국내 오리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육의 반송조치가 및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 일선 유통업체에 따르면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중단 조치이후 태국산 오리고기 유통가격이 종전에 비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밝히므로서 수입채산성 호조에 따른 태국산 오리고기 수입량 역시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뒷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가금육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 농림부 입장 강경

지난 6월 4일 우리정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이후 중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무역마찰에 의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측은 최근 우리정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조치와 관련된 대외경제무역협약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수입을 금지한 것은 근거없는 조치라며 한국 농림부가 지난 6월 4일 어떤 검역증거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검출을 발표했다고 비난하고 금수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정부는 우리정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지와 관련한 무역보복으로 오인될 수 있는 한국산 라이신에 대하여 최근 반덤핑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가 하면 일본과도 자국산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하여 일본산 자동차 및 전자제품에 대한 100%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무역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최근 이한동 국민총리의 중국방문당시 중국정부는 이례적으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한동총리는 통상문제로 확대시키지 말고 검역차원의 기술적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국정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된 우리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한 일련의 조치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산 가금육 수입금지 조치가 질병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지난 마늘분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정치, 외교문제로 비화되어 향후 어떤방향으로 정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식육의 병원균 검출로 인해 우리정부가 국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로 무역분쟁 논의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임에도 중국정부의 주장에 따라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정부가 강력대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만일 마늘협상과 같이 우리정부가 무역의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련의 조치를 수정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처사로 강격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하림 오리고기 유통 진출구체화 해성유황오리와 납품협의

닭고기 국내 최대의 생산유통업체인 하림이 오리고기 유통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림과 해성유황오리는 지난 6월 14일 오리 납품계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어 오리납품 및 판매에 대한 제휴를 위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하림과 해성유황오리는 이날 협의에서 생산 납품물량을 1일 3천수내외로 잡고 하림의 자사상표를 부착한 오리의 판매일시를 오는 7월 6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해성유황오리 관계자는 하림과 해성유황오리의 납품계약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과는 차이가 있으며 품질 좋은 오리를 생산하는 해성유황오리의 오리고기를 하림의 브랜드 이미지와 유통망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서로 상호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또 하림관계자 역시 계약이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하림과 해성유황오리의 이번 계약은 OEM방식이 아닌 제휴형식이라고 밝혔다. 해성유황오리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하림에서 판매하는 오리는 상품명부터 납품가격등이 해성농산의 주도아래 산지 오리시세의 변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일정가격 이상으로 납품되며 하림은 자사 브랜드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아무튼 국내 닭고기 최대의 생산유통업체인 하림의 오리고기 유통업 진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오리업 생산유통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